제1강 -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코마코스 윤리학』

(1교시)

◆ 『니코마코스 윤리학』

※ 학습목표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그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 강의 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인간을 위한 '좋음'이란 무엇인가에 있다. 최상의 인간의 좋음은 물론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이다. 『윤리학』 10권 7-8장에서 인간 행복의 최고의 형식은 '신적인 것'에서 찾아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윤리학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좋음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어떤 종류의 정치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폴리스적 삶, 즉 정치와 관련 맺고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각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 행복
제2권 성격적 탁월성
제3권 탁월성의 조건과 개별적 탁월성
제4권 개별적 탁월성들
제5권 정의
제6권 사유의 탁월성들
제7권 자제력 없음과 즐거움
제8권과 제9권 친애
제10권 즐거움과 행복

- esoterica와 exoterica

esoterica -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써놓은 작품
exoterica - 대중적인 강의를 위한 작품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할 때 일반 독자들이 읽기 편한 저작 중의 하나다. 플라톤의 저작은 문학적이고 은유가 풍부하지만 설명부분이 적어 정리가 어려운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건조하지만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플라톤의 경우는 「대화편」등 exoterica가 남아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esoterica만 남아있다. 강의록이라는 특성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건조한 편이고 수강자가 받아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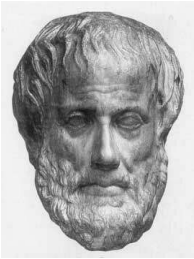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것도 남아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참고자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제이북스, 2006

■참고자료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C 384~BC 322]

▲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전승과정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전승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기원전 322년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제자인 테오프라스토스가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그가 서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200년간 묻힌다. 그것을 훗날 로마에서 안드로니코스가 편집하고, 19세기 말 독일의 베커가 현대적으로 편집한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분량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베커판으로 1462쪽이 남아있으며, 옥스퍼드의 영어번역본의 쪽수는 2383쪽에 달한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는 약 550권에 달하고, 저서의 목록이 146쪽에 해당된다고 한다. 니코마코스윤리학의 첫대목은 1094부터 시작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구성

1p 범주론 - 한 term이 지시하는 대상과 그 의미, 존재를 다룸 - 개념론
9p 명제론 - 명제와 명제가 결합해 하나의 sentence가 되고 그것이 참·거짓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됨 - 판단론

www.artnstudy.com

organon 23p 분석론 전서 - 삼단논법(syllogism) ┐ 추리론
analitika 분석론 후서 - 학문의 방법론. 논증(demonstration) ┘
topika - 변증술
~146p 소피스트 논박 - 오류론

*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논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organon까지는 본격적인 학문이 아닌 학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 - 인간의 세 가지 행위에 관하여

인간의 세 가지 행위
- 안다/본다 - 이론학
- 행위한다 - 실천학
- 만든다 - 제작학(수사학, 시학)

이론학 - 자연학, 생물학(historia animalium - 동물에 관련된 data들의 모음),
신학, 형이상학
* historia - '탐구한다'의 뜻

실천학 - 에우데모스 윤리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대도덕학(magna moralia), 정치학

*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보다 먼저 저술되며 나중에 저술된 만큼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더 체계적이고 정돈된 모습을 보인다. 『에우데모스 윤리학』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세 권이 중복된다.

▲ 헬레니즘 시대의 학문

논리학,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이라는 학문의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분류이지만 이 분류 자체가 헬레니즘시대의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준다.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본격적인 학문의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논리학(logike), 자연학, 윤리학으로 학문이 정리된다. 또한 논리학, 윤리학, 자연학의 순서로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태도를 달걀에 비교해서 논리학은 껍질, 윤리학은 흰자, 자연학이 노른자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하고 과수원의 예를 들어 논리학은 울타리, 윤리학은 나무, 자연학은 열매에 비유하기도 했다.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철학(philosophia)이 하나의 학문의 분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셈이다. 스토아 철학은 초기에는 논리학을 많이 했지만 후기에 가서는 윤리학이 중심이 된다. 에피쿠로스학파는 특히 자연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다.

▲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김남두, 김재홍, 강상진, 이창우 공동저작)

www.artnstudy.com

- 원문 번역에 코멘트를 달아놓은 책으로 시중에 출간되어있지는 않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다운로드 주소 : http://philosophy.snu.ac.kr/center/analysisPDF/3-9.pdf

그 외 참고자료

1. 『Nicomachean Ethics(2nd ed)』, Tr. by T. Irwin, Hackett, 1999
2. 『Nicomachean Ethics』, Ed. by R. Crisp, Cambridge, 2000
3. 『Nicomachean Ethics』, Tr. by S. Broadie & C. Rowe, Oxford, 2002
4. 『Nicomachean Ethics(II-IV)』, Tr. by CCW Taylor, Oxford, 2006

▲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들을 위한 저작이다?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해 썼다고 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강의실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의록의 특성상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 시간의 질문 답변 등이 그대로 정리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아들을 위한 저작이 아닌, 철학수업을 위한 저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박해받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플라톤의 <대화편>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는다. 기독교가 득세해서 국교로 자리 잡은 후 약 천년 가까이 사라진다. 그 후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라틴어 번역본으로 접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번역은 아라비아 학자들의 것이 더 오래되었으며, 그 영향을 받아서 서양 사람들이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상당히 전승과정이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www.artnstudy.com

제1강 -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코마코스 윤리학』

(2교시)

◆ 행복에 관하여

※ 학습목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주제인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대해 알아본다.

▲ 잘 사는 것 = 행복하게 사는 것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 1권에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등장한다. 인간의 '왜 사는가.'라는 물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잘 산다 eu zen - 잘 행위한다 eu prattein - 행복 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주제는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 제1장 좋음과 목적

[1] 모든 기예(기예(技藝), technē)와 탐구(methodos), 도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왔다

* technē - 현재의 technology의 희랍어 어원으로 단순하게 기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지식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무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어떤 기술, 노하우를 뜻한다. 여기서는 기예로 번역했다.

* technē는 라틴어의 ars라는 말로 옮겨지고 이것이 현대의 art가 되었다. art는 요즘은 너무 예술이라는 뜻으로만 좁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ars longa vita brevis(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의술이라고 하는 ars를 충분하게 알고, 경험하고, 어디에 적용해야하는지 확정짓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뜻이다. 이때의 ars, technē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관련되어있는 지식과 테크닉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라 하겠다.

▲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탐구활동에 관련해서도 좋음agathos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좋음'을 기존에는 '선(善)'이라고 번역했다. '선'에는 좋다는 뜻, 착하다는 뜻 등 여러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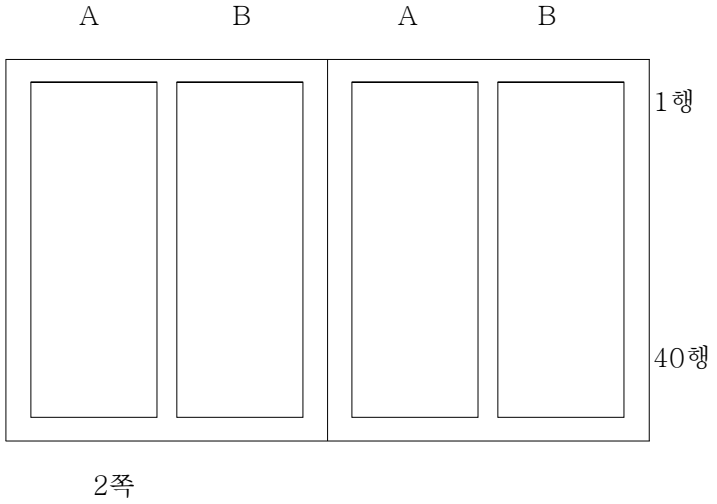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이 있지만 '선'이라고 하면 주로 도덕적인 의미(moral value)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음'이라고 번역했다. 가령 식후에 산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이라는 좋음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행위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ultimate) 것이 있어야 한다.

A → B → C → D → … → 최종적, 궁극적 목적 = 행복

A라는 행위는 더 좋은 B를 위해서 하고, B는 더 좋은 C를 위해서 하며, C는 더 좋은 D를 위해서 한다. 이런 끝없는 인과관계 속에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면 인간의 행위는 애초부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어떤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 계열 속에서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 베커판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페이지 표기



베커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한 페이지가 둘로 나뉘어 있다. 베커판 쪽수는 인용할 때 쪽-A/B-행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1094A40은 1094쪽 A편의 40행을 뜻한다. 젤러는 구두점이 없는 베커판을 문단을 나눠 새롭게 펴냈다. 오히려 베커판 보다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3] 그런데 행위, 기예, 학문(epistēmē)들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그 목적들 또한 많게 되는 것이다. 의술의 목적은 건강, 조선술의 목적은 배, 병법(兵法)의 목적은 승리, 가정경제학(oikonomike)의 목적은 부(富)이니까.

모든 것에는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의 계열, 인과관계 계열 속에서 상하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 종속적인 목적 중에서 최고의

www.artnstudy.com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최고의 좋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장 최고선과 정치학

[1] 그래서 만약 '행위 될 수 있는 것들(prakton)'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그 자체 때문에 바라고,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바라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한히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욕구는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좋음이며 최상의 좋음(ariston, 최고선)일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 좋음의 실현은 정치적 영역에서

10권

[18] 그래서 이것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입법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다른 경우에 그렇듯이 정치학자들에게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입법이 정치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10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정치학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그는 최고의 좋음에 관련된 으뜸가는 학문은 바로 정치학이라고 한다. 윤리학과 정치학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윤리적인 것은 주로 개인적 차원(개인의 행위)의 문제인데, 개인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좋음이 성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폴리스를 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좋음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보면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구별한다.

좋은 인간 ≠ 좋은 시민(agathos polites)

좋은 인간이면서 좋은 시민이라면 이상적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인간이면 그들이 모인 폴리스는 좋은 사회가 되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그런 폴리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다르다. 그렇다면 좋은 시민이란 무엇일까.

* 좋은 시민의 조건

① 관직(archē)
② 의회·재판에 출석해서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www.artnstudy.com

관직을 가지거나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 좋은 시민이 곧 좋은 인간일 수는 없다고 한다. 윤리학에서 보면 좋은 인간을 목적으로 윤리적 성품을 갖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학에서는 그런 좋은 인간보다는 좋은 시민의 요건을 따지고 있다.

[6] 왜냐하면 폴리스 안에 어떤 학문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또 각각의 시민들이 어떤 종류의 학문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를 정치학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후략. [7] 또, 정치학은 나머지 실천적인 학문들을 이용하면서, 더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고 무엇을 삼가야만 하는지를 입법하기에 그것의 목적은 다른 학문들의 목적을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좋음'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학의 목적은 '인간적인 좋음'일 것이다. [8] 왜냐하면 설령 그 좋음이 한 개인과 한 폴리스에 대해서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폴리스의 좋음이 취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크고 완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좋음을 취하고 보존하는 일이 단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라면, 한 종족과 폴리스에 있어서는 더 고귀하고 한층 더 신적인 일이니까. 따라서 우리의 탐구는 일종의 정치학적인 것으로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2장에서는 최고의 좋음을 탐구하는 학문이 결국은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2장의 요점은 최고의 좋음이 있어야 우리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욕구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제3장 논의의 방법

『니코마코스 윤리학』 3장의 주요내용은 윤리학은 수학과 기하학같이 엄밀한 학문이 아니므로 그 주제가 허용하는 것만큼만 정확성에 도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1] 우리의 주제가, 허용하는 만큼의 정확성에 도달한다면 충분히 논의된 셈일 것이다.

주제가 허용하는 만큼의 엄밀성만을 찾아야지 그 이상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 철학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도 philosophy가 들어가야 한다.

[5] 그런데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이것들에 대한 좋은 판단자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판단자이며, 전 분야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이 단적으로 좋은 판단자이다. 그런 까닭에 젊은이는 정치학에 적합한 수강자가 아니다. 젊은이에게는 인생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정치학의 논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6] 게다가 젊은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르기 쉬워서 상의를 들어봐야 헛되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학의 목적은 앎이 아니라 행위이니까.

정치학(윤리학도 마찬가지다)은 행위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좋은 습관을 얻는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체

www.artnstudy.com

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성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든가 윤리학의 강의를 들어도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학문은 엄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경험 없이도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정치학이나 윤리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륜이 쌓였을 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행복의 출발점 - endoxa

4장에 들어와 다시 좋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궁극적인, 최고의 좋음이 있는데 정치학이 추구하는 좋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 endoxa(통념)

: 대부분의 교육받은 교양인, 지혜로운 사람이 동의하는 바를 뜻하며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의 근원적 출발은 endoxa, 혹은 endoxa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윤리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경우는 소위 이데아라고 하는 것, 그 자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을 검토한다. 따라서 최상의 좋음인 행복에 대해 endoxa에서 출발하고 있다.

[6] 이런 까닭에 고귀하고 정의로운 것에 관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학의 문제들에 관해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좋은 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자랐어야 한다.

[7] 제일원리(archē)는 사실이며, 이것이 충분히 분명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을 통해 훌륭하게 자란 사람은 제일원리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쉽게 취할 것이다.

www.artnstudy.com